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현황과 추세

-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를 중심으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노동패널)는 10차년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동일한 비정규직 판별설문 조사 시작
- 여기서는 이 설문항목 분석을 통해 경활과 비정규직 규모, 추이가 얼마나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함
 - 노동패널은 2009년을 대상으로 하는 12차년도 조사부터 표본추가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변경되었으므로, 12-17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 수행하겠음
-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보고자 함
 - 2장에서 동일한 패널을 추적함에 따라 경활보다 노동패널에서 좀 더 고령화가 진척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두 조사 간의 인구분포 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분석
 - 다음으로, 설문구조에서의 차이나 설문을 조사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분석
 -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여 조합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이 판별되는 복잡한 설문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응답이 현재의 응답과 어긋나는 비표본오차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음. 이 부분을 좀 더 주의하여 응답받지 않으면 비정규직 추이나 변동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끝으로, 비표본오차 교정 전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또는 실업으로의 이행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음(3장)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인을 연결하여 패널화 분석을 해야 비교 가능한 수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경활과 비교하지 않았음
-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였음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 분석

2.1. 추이

- 노동패널은 비정규직이 2014년 다소 크게 된 것을 제외하면 경황과 비교해 문제 있어 보이지 않음
- 세부로 구분해 보면 한시근로 비중과 추이가 경황과 반대라는 차이 존재
 - 과거엔 기간제가 지나치게 작았고,
 - 기간제 추이가 경황과 반대이며,
 - 비기간제 한시근로가 지나치게 많이 잡히는 차이 있음
- 비전형 근로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규모와 추이.
 - 세부적으로 보아도 크게 다른 추이는 나타나지 않음
 - 다만, 일일근로는 노동패널이 크고, 독립도급은 경황이 큰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시간제는 노동패널이 규모가 다소 작지만 증가하는 추이라는 특징 자체는 유사
- 정리하면, 가장 큰 차이는 한시근로에서 나타남

<표 1>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 표본과 경황 8월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정규직 비중	노동패널	31.4	32.1	32.6	33.8	32.1	35.7
	경황	34.9	33.4	34.2	33.3	32.6	32.4
한시근로 비중	노동패널	20.6	22.3	23.5	26.5	24.6	28.4
	경황	21.3	19.2	19.7	19.2	18.8	18.7
기간제 비중	노동패널	9.1	9.5	9.4	10.2	10.4	12.7
	경황	17.1	14.6	15.2	15.3	15.1	14.6
비전형근로 비중	노동패널	13.1	13.2	12.7	11.7	12.5	12.9
	경황	13.9	13.4	13.9	12.9	12.1	11.3
시간제 비중	노동패널	7.4	7.6	7.9	7.6	8.0	8.8
	경황	8.7	9.5	9.7	10.3	10.3	10.8

주: 임금근로자 중 비중.

<표 2> 비전형근로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파견	노동패널	1.9	1.7	1.4	1.4	1.9	1.8
	경찰	1.0	1.2	1.1	1.2	1.1	1.0
용역	노동패널	2.6	3.2	3.3	2.8	3.0	3.4
	경찰	3.8	3.6	3.8	3.8	3.5	3.2
독립도급	노동패널	2.2	2.0	1.9	2.0	1.8	1.7
	경찰	3.9	3.5	3.5	3.1	3.0	2.8
가내	노동패널	0.9	0.7	0.8	0.6	0.6	0.4
	경찰	0.6	0.4	0.4	0.4	0.4	0.3
일일	노동패널	7.3	7.0	6.8	6.0	6.3	6.5
	경찰	5.4	5.1	5.5	4.9	4.5	4.3

주: 임금근로자 중 비중.

2.2. 인구분포 차이

- 노동패널 이용자들이 하는 가장 쉬운 의심이 패널 노후화에 따른 고령화 발생임
 - 가중치 부여 전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의심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가중치 부여(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후에는 차이가 거의 없음
- 경찰과 인구학적 분포를 정확히 맞추면 비정규직 비중과 추이가 비슷해지는지 보기 위해 경찰 8월 부가조사에서 나타나는 성×연령(15-24세/ 이후 5세 구간/ 65세 이상)×교육(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분포를 정확히 일치시켜 결과를 확인해 보겠음.
- 노동패널-교정이라고 되어 있는 수치가 경찰에 맞춰 가중치를 조정 한 후의 결과임. 연령분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 연령별 분포 - 2014년 8월 경찰과 2014년 한국노동패널조사(17차년도)

(단위: %)

	경찰	노동패널		노동패널-교정
		가중치 부여 후	가중치 부여 전	
15-24세	14.6	15.3	8.8	14.6
25-29세	7.7	8.0	5.0	7.7
30-34세	9.2	9.9	8.4	9.2
35-39세	8.9	8.1	10.2	8.9
40-44세	10.1	9.1	10.6	10.1
45-49세	9.8	10.6	9.0	9.8
50-54세	10.0	10.0	9.3	10.0
55-59세	8.6	8.4	9.2	8.6
60-64세	6.0	6.1	7.5	6.0
65세 이상	15.1	14.6	22.1	15.1

○ 학력별 분포는 가중치 부여 후에도 저학력자는 노동패널에 다소 작고, 고학력자는 다소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 학력별 분포 - 2014년 8월 경찰과 2014년 한국노동패널조사(17차년도)

(단위: %)

	경찰	노동패널	노동패널-교정
중졸 이하	27.2	24.8	27.2
고졸	38.3	34.5	38.3
전문대졸	10.6	13.5	10.6
대졸 이상	23.9	27.3	23.9

○ 경찰에 맞춰 성×연령×교육 분포를 일치시킬 때 비정규직 비중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 지 확인해 보았음

- 여전히 경찰과는 차이가 존재.

<표 5>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노동패널	경활	노동패널-교정
2009	31.4	34.9	31.3
2010	32.1	33.4	31.7
2011	32.6	34.2	33.2
2012	33.8	33.3	35.5
2013	32.1	32.6	32.4
2014	35.7	32.4	35.7

○ 한시근로자만 보아도 인구학적 분포는 경활과의 차이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음

<표 6> 임금근로자 중 한시근로 비중 추이

(단위: %)

	노동패널	경활	노동패널-교정
2009	20.6	21.3	19.5
2010	22.3	19.2	21.5
2011	23.5	19.7	23.7
2012	26.5	19.2	25.7
2013	24.6	18.8	25.4
2014	28.4	18.7	28.6

○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표 7>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 추이

(단위: %)

	노동패널	경활	노동패널-교정
2009	9.1	17.1	8.5
2010	9.5	14.6	9.0
2011	9.4	15.2	9.4
2012	10.2	15.3	9.5
2013	10.4	15.1	10.0
2014	12.7	14.6	12.7

<표 8> 임금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노동패널	경활	노동패널-교정
2009	13.1	13.9	12.5
2010	13.2	13.4	12.7
2011	12.7	13.9	12.1
2012	11.7	12.9	13.1
2013	12.5	12.1	11.8
2014	12.9	11.3	13.0

<표 9>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노동패널	경활	노동패널-교정
2009.0	7.4	8.7	8.6
2010.0	7.6	9.5	7.9
2011.0	7.9	9.7	7.8
2012.0	7.6	10.3	8.0
2013.0	8.0	10.3	7.5
2014.0	8.8	10.8	8.2

- 결론: 인구학적 비중 차이는 양 자료의 상이한 비정규직 트렌드의 원인이 아니다
 - 가중치 부여했을 때 인구학적 비중(연령, 성, 교육)은 잘 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다만, 교육분포는 다소 경활과 차이가 있음
- 다음 절로 넘어가기에 앞서 연령대 안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크게 다른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인지 확인해 보았음
 - 2014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특히 크게 차이나는 연령대는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남. 이를테면, 경활에선 50-54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0.6%인데 반해 노동패널에서는 42.3%로 11.7%p나 높으며, 60-64세도 약 9.6%p 높게 나타남
 - 반면 40대 이하 연령대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령층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단위: %)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39.1	38.8	44.2	41.2	43.6	42.2	47.5	48.7	48.7	48.5	49.2	46.7
25-29세	21.1	22.6	23.8	24.0	21.6	32.7	26.5	25.3	25.5	24.2	23.7	25.2
30-34세	18.6	17.8	19.5	16.5	16.6	19.4	23.0	22.4	23.1	20.7	20.6	19.8
35-39세	23.4	25.0	21.0	22.2	19.8	20.8	27.2	24.2	25.5	25.6	23.9	24.0
40-44세	32.1	31.1	31.2	31.3	28.0	29.8	31.0	29.5	29.2	27.9	26.5	26.5
45-49세	36.6	35.9	36.6	36.7	32.5	33.8	33.7	30.1	31.9	30.4	28.0	26.6
50-54세	37.6	37.6	38.3	42.3	40.6	42.3	36.1	35.3	37.0	34.6	32.2	30.6
55-59세	46.3	48.8	44.0	48.1	44.6	46.9	48.3	46.1	43.8	42.0	44.2	40.0
60-64세	61.6	60.6	62.4	64.8	62.5	67.2	65.9	61.2	63.1	62.4	57.6	57.6
65+	68.6	72.6	75.4	81.6	81.3	85.0	79.0	77.7	77.1	77.4	76.3	77.7
Total	31.4	32.1	32.6	33.8	32.1	35.7	34.9	33.3	34.2	33.3	32.6	32.4

○ 한시근로자 비중은 고연령대에서 특히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수치가 다소 튀는 것으로 보이는 2014년은 제외하고 가장 최근 수치인 2013년을 비교해 보면

- 30대 이하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40대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고연령대는 10%p 이상 차이 나타남

<표 11>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한시근로 비중

(단위: %)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24.3	29.1	27.2	28.8	31.8	33.4	29.4	28.2	25.6	24.4	25.9	23.6
25-29세	15.9	17.0	19.7	20.7	18.0	28.6	20.8	18.9	19.7	17.9	17.5	18.7
30-34세	14.1	13.5	15.7	13.4	13.0	16.5	15.4	14.5	15.6	14.7	13.9	13.5
35-39세	16.7	17.6	15.6	17.4	14.1	16.4	15.3	13.8	15.1	15.9	14.1	14.0
40-44세	21.3	22.2	23.0	26.1	21.1	22.2	17.0	16.0	15.2	15.2	14.8	14.6
45-49세	21.2	23.6	24.0	26.5	24.6	27.2	16.9	14.3	16.2	15.1	14.2	13.7
50-54세	21.5	22.2	26.2	29.9	29.2	29.8	19.2	17.2	17.6	16.9	15.6	15.2
55-59세	29.1	34.0	32.1	39.1	34.1	37.8	27.7	24.0	23.0	22.6	24.1	21.0
60-64세	38.1	38.8	44.9	53.1	54.0	55.7	45.0	34.8	36.5	34.7	30.7	31.9
65+	46.8	56.2	56.0	69.2	64.3	70.3	54.1	51.4	48.0	48.7	50.7	51.8
Total	20.6	22.3	23.5	26.5	24.6	28.4	21.3	19.2	19.7	19.2	18.8	18.7

○ 기간제 비중은 최근 연령대의 경우 경황과 큰 차이가 없어 비기간제 한시근로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됨

<표 12>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

(단위: %)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11.7	14.1	10.9	13.6	12.9	15.4	25.2	23.6	21.4	20.2	21.6	19.0
25-29세	8.0	7.2	10.6	11.4	11.0	16.3	17.4	14.7	15.6	14.5	13.9	14.9
30-34세	7.3	5.6	7.0	4.4	5.7	7.5	12.2	10.7	11.3	11.5	11.4	10.4
35-39세	8.2	8.2	5.6	6.1	5.2	6.5	12.2	9.8	11.4	12.2	11.0	10.1
40-44세	7.0	10.0	9.9	9.6	9.1	9.5	12.5	10.6	10.9	11.2	11.4	10.3
45-49세	8.5	9.8	8.5	8.5	7.7	10.9	11.9	10.0	11.8	11.5	10.5	9.7
50-54세	6.8	6.4	5.4	8.6	9.2	10.1	14.5	12.5	12.1	13.0	11.7	11.0
55-59세	11.9	11.5	11.6	12.0	12.8	13.3	22.7	19.4	18.4	18.8	18.9	16.9
60-64세	19.1	16.4	17.0	23.5	26.1	27.4	38.8	29.2	30.8	28.6	26.5	27.7
65+	28.4	32.3	32.7	37.3	37.9	43.3	47.4	43.2	42.8	42.3	45.3	46.3
Total	9.1	9.4	9.4	10.2	10.4	12.7	17.1	14.6	15.2	15.3	15.1	14.6

○ 다음으로 비전형 근로자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음. 다만, 65세 이상은 10%p 이상 차이

-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부표 참조

<표 13>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 비중

(단위: %)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8.0	4.9	6.6	5.8	5.3	5.0	7.1	6.6	7.5	7.7	5.4	5.9
25-29세	4.6	5.6	5.6	3.4	5.5	6.8	6.2	5.7	5.1	5.0	4.9	4.1
30-34세	4.3	4.7	4.0	3.3	3.6	4.9	7.8	6.7	6.5	5.2	5.4	4.8
35-39세	8.3	8.7	6.9	7.4	6.8	5.9	11.2	9.9	9.6	8.6	8.4	7.8
40-44세	13.2	14.4	11.8	9.5	11.1	12.9	13.9	12.5	13.1	11.0	10.1	9.9
45-49세	17.3	15.9	16.1	15.2	14.5	10.5	17.1	15.1	15.4	14.9	13.1	11.0
50-54세	21.1	19.7	22.0	20.4	19.9	20.1	18.8	19.0	20.2	18.2	16.2	14.6
55-59세	26.9	26.2	23.3	21.3	23.0	21.7	25.1	27.4	25.2	22.3	22.8	20.1
60-64세	37.0	35.0	33.2	27.9	27.0	29.8	32.4	33.7	35.2	33.7	30.9	29.1
65+	35.4	35.5	34.6	33.5	36.3	39.7	30.7	32.4	36.4	35.1	31.2	28.8
Total	13.1	13.2	12.7	11.7	12.5	12.9	13.9	13.4	13.9	12.9	12.1	11.2

○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시간제 근로 비중을 보면, 역시 고연령 층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노동패널은 65세 이상의 경우 임금 근로자 중 29.5%만이 시간제였는데 경활은 46%로 나타나 무려 16.5%p 낮게 나타남

- 또한 15-24세도 노동패널은 22.9%인데 경활은 27.2%이므로 약 4.3%p 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14>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 비중

(단위: %)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19.8	17.1	23.4	18.9	20.6	22.9	22.0	24.7	25.3	26.9	27.9	27.2
25-29세	4.0	3.4	4.4	3.1	3.1	6.5	3.4	4.4	4.3	5.0	4.5	6.3
30-34세	2.9	3.3	3.3	2.8	4.5	2.4	3.9	4.9	4.2	3.8	4.6	4.4
35-39세	4.4	6.4	5.4	4.4	4.2	4.6	6.3	6.2	6.5	6.0	5.7	5.9
40-44세	8.2	6.9	6.4	6.5	7.2	6.7	8.0	7.1	6.8	7.1	6.8	6.6
45-49세	10.5	9.5	9.8	9.0	9.2	9.0	7.5	7.7	7.7	7.4	7.0	7.1
50-54세	7.0	7.6	7.4	9.1	8.2	9.4	7.0	8.2	8.9	8.2	7.5	7.2
55-59세	7.0	8.6	7.8	9.6	9.1	10.6	8.9	8.9	9.8	11.3	10.9	9.6
60-64세	7.8	9.9	7.6	8.6	10.2	10.8	11.8	14.9	14.6	19.2	18.8	18.3
65+	26.8	28.8	26.9	26.6	26.2	29.5	33.5	41.3	41.2	42.7	42.9	46.0
Total	7.4	7.6	7.9	7.6	8.0	8.8	8.7	9.5	9.7	10.3	10.3	10.8

○ 이상의 분석은 젊은 층보다는 고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경찰과 노동패널의 상이한 규모를 야기한 주요 원인임을 보여줌

- 이러한 경향은 특히 비기간제 한시근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외에도 산업과 직업까지 통제한 상태에서 Oaxaca 분해 방법을 통해 경찰과 노동패널의 분포 차이가 얼마나 한시근로 차이를 설명하는지 분석해 보았음

- 노동패널에서는 2009년 이래 한시근로가 급증하였으나 2014년은 다소 수치가 기이하게 증가하였으므로 2013년 자료를 이용해 경찰과 비교

- 결과를 보면, 두 자료간 임금근로자 중 한시근로 비중 차이는 5.8%p로 나타나는데, 분포 차이를 교정하면 오히려 두 자료 간 차이가 0.6%p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패널과 경찰의 비정규직 차이 중 핵심적인 부분이 한시근로의 차이인데, Oaxaca 분해 결과는 연령, 교육수준, 성별, 산업, 직업의 양 자료 간 분포 차이에 의해 전혀 설명되지 않으며, 다른 요인에 원인이 있음을 의미함

<표 15> Oaxaca 분해 결과

	계수	표준오차	p값
경찰 한시근로 비중	0.188	0.003	0.000
노동패널 한시근로 비중	0.246	0.002	0.000
두 자료간 차이	-0.058	0.004	0.000
분포차이로 설명되는 부분	0.006	0.002	0.000
분포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0.064	0.003	0.000

2.3. 설문구조, 조사방식의 차이

○ 기간제 차이: 경찰과 노동패널 1개월~1년 미만 비중이 크게 다르고,

- 경찰은 2009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래 규모변동이 없는 반면, 노동패널은 1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계약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 경찰에서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며, 만약 1개월 이상 2년 미만을 합치면 최근에는 노동패널과 규모가 비슷.

<표 16> 전체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의 계약 기간 분포 - 경찰

(단위: %)

	1개월 미만	1개월~1년 미만	1년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Total
2009	1.6	7.2	6.6	1.1	0.5	0.2	17.1
2010	0.9	5.0	7.2	0.9	0.4	0.2	14.6
2011	1.0	5.3	7.2	1.0	0.5	0.3	15.2
2012	1.1	5.1	7.4	0.9	0.4	0.4	15.3
2013	1.0	5.3	6.9	0.9	0.5	0.5	15.1
2014	1.0	5.4	6.3	1.1	0.5	0.4	14.6

<표 17> 전체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의 계약 기간 분포 - 노동패널

(단위: %)

	1개월 미만	1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Total
2009	0.0	1.2	6.9	0.3	0.2	8.6
2010	0.0	1.4	6.7	0.4	0.3	8.8
2011	0.0	1.6	7.0	0.1	0.3	8.9
2012	0.0	1.9	7.4	0.1	0.1	9.6
2013	0.1	1.7	8.0	0.1	0.2	10.1
2014	0.1	2.3	9.3	0.2	0.2	12.1

○ 1개월 미만자가 왜 적은 지 보기 위해 종사상 지위의 일용직 규모를 비교해보면 노동패널이 오히려 1.1%p 크게 나타남

- 임시직은 경찰이 크지만, 경찰의 임시직은 1년 미만이라는 계약의 기간만이 아니라 인사관리 적용 여부 같은 추가적 요인들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계약해도 임시직으로 분류하는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불가능

- 본 연구에서는 알 수 없는 1년 미만 계약직을 정의하는 조사관행 차이까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표 18> 종사상지위 분포 - 2014년

(단위: %)

	경찰	노동패널
상용직	64.8	74.4
임시직	27.2	16.6
일용직	8.0	9.1

- 임금 분포별 비정규직 분포를 보면 2014년을 제외하면 초저임금층에서 다소간의 차이 존재.

- 초저임금층은 중위 시간당 임금의 50% 미만, 저임금층은 중위 시간당 임금의 2/3미만, 50% 이상. 중하임금층은 중위임금 미만, 중위임금 2/3 이상. 중상임금층은 중위임금 이상 중위임금 3/2 미만, 고임금층은 중위임금 3/2 이상.

<표 19> 임금 수준별 비정규직 분포

(단위: %)

	노동패널						경찰					
	초저 임금	저임 금	중하 임금	중상 임금	고임 금	전체	초저 임금	저임 금	중하 임금	중상 임금	고임 금	전체
2009	53.3	47.4	36.4	23.5	14.8	31.4	60.6	53.9	41.6	28.5	12.9	34.9
2010	59.6	49.9	35.8	24.4	15.2	32.0	59.5	48.4	40.1	27.5	13.2	33.3
2011	64.8	49.5	36.5	24.0	13.6	32.5	62.5	51.0	39.9	29.5	15.2	34.2
2012	72.5	52.6	40.4	24.7	11.9	33.8	63.2	51.8	38.2	27.6	14.6	33.3
2013	68.8	48.4	35.0	23.5	12.2	32.0	64.0	49.9	36.6	25.6	13.1	32.6
2014	74.7	58.1	40.1	24.5	16.4	35.7	63.1	51.4	37.6	24.2	12.7	32.4

- 그러나 한시근로는 차이가 큼. 특히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저임금층은 한시근로 비중이 경찰보다 크게 높음.

- 2009년은 노동패널과 경찰의 한시근로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 뒤로는 노동패널 조사에서 초저임금층 임금근로자의 40.5%가 한시근로이며, 경찰은 29.1%만이 한시근로.

- 우리나라 저임금 부문에는 큰 규모의 비공식 고용이 있어 조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비기간제 한시근로 규모가 크게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표 20> 임금 수준별 한시근로 분포

(단위: %)

	노동패널						경찰					
	초저 임금	저임 금	중하 임금	중상 임금	고임 금	전체	초저 임금	저임 금	중하 임금	중상 임금	고임 금	전체
2009	29.4	32.8	25.1	15.7	10.4	20.6	30.4	36.5	25.6	17.3	8.7	21.3
2010	40.5	34.7	24.5	16.7	11.9	22.4	29.1	29.8	22.5	16.4	9.1	19.2
2011	45.7	35.8	26.8	18.0	9.3	23.5	28.1	28.9	24.0	18.1	9.9	19.7
2012	57.6	43.1	31.2	18.5	9.3	26.5	30.2	27.9	23.2	16.6	10.0	19.2
2013	54.6	36.9	28.2	16.2	9.3	24.6	29.6	30.1	21.3	15.7	9.1	18.8
2014	56.4	48.1	31.9	19.2	13.7	28.5	29.9	30.3	22.1	14.7	8.6	18.7

○ 2014년 수치를 제외하면 기간제는 전체적으로 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별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표 21> 임금 수준별 기간제 분포

(단위: %)

	노동패널						경찰					
	초저 임금	저임 금	중하 임금	중상 임금	고임 금	전체	초저 임금	저임 금	중하 임금	중상 임금	고임 금	전체
2009	12.2	15.3	11.8	6.6	4.3	9.1	21.4	29.7	20.7	14.9	7.1	17.1
2010	15.9	15.6	9.7	6.5	6.3	9.5	21.2	22.5	17.6	13.4	6.3	14.6
2011	18.6	15.2	10.4	7.0	3.6	9.4	21.2	22.3	19.4	14.3	7.3	15.2
2012	20.8	17.3	12.6	6.7	3.6	10.2	23.6	22.2	18.8	13.2	8.0	15.3
2013	22.2	14.9	11.2	6.9	5.5	10.4	21.9	25.0	17.5	12.8	7.3	15.1
2014	27.5	21.0	13.8	7.6	7.1	12.7	22.5	23.6	18.1	11.5	6.5	14.6

○ 비전형 근로나 시간제는 특별히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표 22> 임금 수준별 비전형 근로 분포

(단위: %)

	노동패널						경찰					
	초저 임금	저임 금	중하 임금	중상 임금	고임 금	전체	초저 임금	저임 금	중하 임금	중상 임금	고임 금	전체
2009	23.5	17.5	15.1	11.2	5.3	13.0	28.2	18.8	17.0	11.7	3.9	13.9
2010	23.6	16.9	16.3	12.3	4.8	13.2	27.2	17.7	17.1	11.4	3.7	13.4
2011	22.9	16.8	15.5	10.9	5.2	12.6	31.1	20.9	15.8	11.8	4.3	13.9
2012	21.4	14.1	16.9	9.7	3.9	11.7	28.8	19.2	15.9	10.5	4.0	12.9
2013	21.9	14.2	16.1	11.4	4.3	12.4	25.6	17.3	15.3	9.8	3.1	12.1
2014	24.6	15.8	16.8	10.6	5.2	12.9	22.7	15.6	15.0	8.7	3.2	11.2

<표 23> 임금 수준별 시간제 분포

(단위: %)

	노동패널						경활					
	초저 임금	저임 금	중하 임금	중상 임금	고임 금	전체	초저 임금	저임 금	중하 임금	중상 임금	고임 금	전체
2009	21.4	13.7	6.0	2.1	3.1	7.4	24.9	11.7	9.2	4.5	2.6	8.7
2010	19.7	16.4	6.6	2.5	3.6	7.5	25.4	15.8	9.7	4.7	2.9	9.5
2011	24.2	14.6	6.3	3.1	3.0	7.8	27.2	17.2	9.4	4.8	3.7	9.7
2012	30.3	12.9	5.9	3.0	2.4	7.6	30.6	21.9	7.9	5.4	2.9	10.3
2013	28.5	15.6	4.9	2.7	3.2	7.9	32.7	20.0	8.1	4.5	3.1	10.3
2014	34.6	17.5	5.3	3.7	3.5	8.8	33.8	23.7	9.1	4.3	2.7	10.8

○ 특히 문제가 되는 비기간제 한시근로의 사유별 임금근로자 중 비중을 보면, 3(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과 7(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의 비중 차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

- 비공식 부문이라면 이와 같은 응답지가 주어졌을 때 면접원이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는지에 따라 해당된다/ 안된다는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것임

<표 24> 사유별 비기간제 한시근로자의 임금근로자 중 비중

(단위: %)

		0	1	2	3	4	5	6	7	전체
노동패널	2009	88.5	0.6	0.5	4.0	0.9	0.0	0.2	5.3	100.0
	2010	87.1	0.9	0.8	6.7	1.2	0.1	0.4	2.9	100.0
	2011	85.9	0.5	0.9	8.1	1.1	0.0	0.4	3.2	100.0
	2012	83.7	0.8	1.1	11.0	1.2	0.0	0.3	2.0	100.0
	2013	85.8	0.7	1.3	8.6	1.2	0.0	0.4	2.1	100.0
	2014	84.3	0.4	0.7	8.6	1.2	0.0	0.4	4.5	100.0
경활	2009	95.8		0.2	2.5	0.3	0.1	0.1	1.0	100.0
	2010	95.4		0.2	2.3	0.2	0.0	0.1	1.8	100.0
	2011	95.6		0.2	1.9	0.3	0.0	0.1	1.9	100.0
	2012	96.1		0.1	1.9	0.2	0.0	0.0	1.6	100.0
	2013	96.3		0.2	1.8	0.2	0.0	0.1	1.4	100.0
	2014	96.0		0.2	1.7	0.2	0.0	0.1	1.9	100.0

주: 0="비기간제 한시근로"가 아닌 임금근로자, 1~7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기간제 한시근로로 응답한 사람들을 의미. 1=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목시적,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3=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현재 하는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5=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6=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7=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 다음으로, 비기간제 한시근로 규모가 왜 크게 차이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비기간제 한시근로 설문구조를 검토해 보았음

- 비기간제 한시근로로 응답되려면,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라는 설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후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에서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라고 응답하거나 (비기간제 한시근로 1)
-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라는 설문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후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에서 다음 항목 중 하나로 응답해야 함 (비기간제 한시근로 2)
 -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 묵시적,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 현재 하는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 경찰 설문구조와 노동패널조사의 설문구조 상 차이 때문에 비정규직 전체 규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경찰에 비해 비기간제 한시근로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

- 경찰 설문에서는 일일근로로 일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설문을 뛰어넘게 되어 비기간제 한시근로로 분류될 가능성이 없음
- 그러나, 노동패널에서는 일일근로 판별 설문은 유형설문지에, 비기간제 한시근로 관련 설문은 취업자 개인 설문지에 있어 일일근로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비기간제 한시근로 설문에서 응답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일근로자의 일부가 비기간제 한시근로자로도 교차 분류될 수 있게 되는 차이가 있음
- 경찰과 동일하게 일일근로면 비기간제 한시근로로 분류되지 않도록 처리하면 노동패널의 한시근로자 규모는 2009년에는 약 2.6%p, 2014년에는 약 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기간제 한시근로 2에서 규모 감소가 두드러짐.
- 그러나, 이렇게 경찰과 응답을 일치시켜도 여전히 규모 차이는 존재. 비기간제 한시근로 1과 2를 합쳐 경찰에서 나타나는 임금근로자 중 비기간제 한시근로 비중은 2009년 4.2%, 2013년 3.7%, 2014년 4.1%에 불과하지만, 노동패널은 교정 전 각각 11.3%, 14.3%, 15.8%, 교정 후 8.9%, 10.1%, 11.6%로 나타남.

<표 25> 한시근로의 규모 변화 - 일일근로 통제 여부별 규모 추이 변화 (임금근로자 중 비중)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시근로	경활	21.3	19.2	19.7	19.2	18.8	18.7
	노동패널	20.6	22.3	23.5	26.5	24.6	28.4
	일일근로 제외시	18.0	19.0	20.2	23.1	20.5	24.4
비기간제 한시근로1	경활	1.0	1.8	1.9	1.6	1.4	1.9
	노동패널	5.3	2.9	3.2	2.0	2.1	4.5
	일일근로 제외시	4.9	2.7	3.0	1.9	1.9	4.1
비기간제 한시근로2	경활	3.2	2.8	2.5	2.3	2.3	2.2
	노동패널	6.2	10.0	10.9	14.3	12.2	11.3
	일일근로 제외시	4.0	6.9	7.8	11.1	8.3	7.5

주: 비기간제 한시근로1은 계약 반복갱신, 비기간제 한시근로2는 6가지 조건 충족자(기대불가)

○ 또 다른 차이로 경활 설문에서는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에는 비기간제 한시근로가 응답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설문구조 상의 차이가 아니라 응답과정에서 면접원 교육 또는 사후적인 클리닝의 결과로 보임
- 그러나, 이 항목은 노동패널에서 같은 방식으로 교정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2014년에야 0.28%p 차이가 나타남

<표 26>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 만료”자 제외시 임금근로자 중 비기간제 한시근로 2 비중 추이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일근로 제외 시 비기간제 한시근로 2	4.00	6.86	7.76	11.05	8.26	7.50
추가로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 만료자” 제외시	4.00	6.86	7.76	11.05	8.26	7.22

3. 정규직-비정규직 변화에 나타나는 비표본오차의 교정

○ 노동패널조사는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정규직-비정규직을 오가는 사람들을 포착할 수 있음

- 이들 중에는 현실에서 있음직하거나 일관된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한 직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직-비정규직을 오가는 케이스가 섞여 있음
- <표 27>에서 가~타까지는 한 직장에서 있을 수 있는 변화의 패턴임. 이를테면, 정규직으로 있다가 은퇴 후 재고용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A~D의 경우 한 직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을 왔다갔다 한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있음직하지 않은 변화의 패턴임.

<표 27> 노동패널에서 발견되는 정규직(=0), 비정규직(=1) 변화의 패턴 - 한 직장 내의 경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	0	1	1	1	1	1
나	0	0	1	1	1	1
다	0	0	0	1	1	1
라	0	0	0	0	1	1
마	0	0	0	0	0	1
바	1	0	0	0	0	0
사	1	1	0	0	0	0
아	1	1	1	0	0	0
자	1	1	1	1	0	0
차	1	1	1	1	1	0
카	0	0	0	0	0	0
타	1	1	1	1	1	1
A	0	1	0	1	1	1
B	1	0	1	1	0	0
C	0	1	1	1	1	0
D	0	1	0	1	0	1

○ 이 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고용형태를 교정했을 때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해 보겠음

- 분석을 위해 주된 일자리만 남긴 상태에서 동일 기업 내 비정규↔정규를 왔다갔다 하는 경우만을 교정하겠음
- 다만, 교정을 할 때 어떤 것이 맞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관찰기간 6년 간 3회를 초과

해 비정규직이었으면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겠음

- 즉, A, C, D는 모두 1로, B는 0으로 재입력하는 방식임.

○ 교정한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은 대략 1%p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나 비전형근로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비정규직 1%p 감소는 거의 전적으로 한시근로 감소 때문임.
- 다만, 이와 같은 교정은 맞는 고용형태가 무엇인지 재조사하여 교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조사 과정에서 교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크게 비정규직 규모가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큼
- 조사과정에서 고용형태 설문은 전년도 값과 대조해 재질문하는 루틴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노트북을 이용해 조사하므로, 전년도 값을 내장해 대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조사과정에서의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8> 비정상적으로 판단되는 정규↔비정규 이동 교정 시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중 비중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정규직 비중	교정	30.5	30.8	31.2	32.8	31.4	34.8
	원계열	31.4	32.1	32.6	33.8	32.1	35.7
	경활	34.9	33.4	34.2	33.3	32.6	32.4
한시근로 비중	교정	20.1	21.4	22.3	25.7	24.0	27.5
	일일근로 제외+비표본오차 교정	17.5	18.1	19.0	22.3	20.0	23.5
	원계열	20.6	22.3	23.5	26.5	24.6	28.4
기간제	교정	8.7	8.9	9.1	9.9	10.1	12.2
	원계열	9.1	9.5	9.4	10.2	10.4	12.7
	경활	17.1	14.6	15.2	15.3	15.1	14.6
비전형근로 비중	교정	12.7	13.0	12.6	11.6	12.4	12.7
	원계열	13.1	13.2	12.7	11.7	12.5	12.9
	경활	13.9	13.4	13.9	12.9	12.1	11.3
시간제 비중	교정	7.4	7.6	7.9	7.6	8.0	8.8
	원계열	7.4	7.6	7.9	7.6	8.0	8.8
	경활	8.7	9.5	9.7	10.3	10.3	10.8

○ 교정 전에는 12차 조사에서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 중 1년 뒤인 13차 조사에서 정규직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5.8%였는데, 교정 후에는 22.2%로 감소

- 교정 전에는 12차 조사에서 비정규직이었으나 5년 뒤인 17차 조사에서 정규직이라고 응

답한 전환자는 28.7%였으나, 교정 후에는 26.8%로 감소

- 1년 경과 후에 비해 5년 뒤에 비정규직으로 남은 사람은 60.5%에서 47.0%로 감소했지만,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들은 1년 뒤 22.2%에서 5년 뒤 26.8%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교정 후 기준)
- 대신 자영업으로 전환된 사람은 2.9%에서 7.1%로 증가하고, 미취업으로 바뀐 사람은 14.4%에서 19.2%로 증가(교정 후 기준)

- 같은 기업 내 이동만 보면, 1년 뒤에는 16.7%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5년 뒤 시점에서 보면 11.5%만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음
- 1년 뒤에는 53.2%가 같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인 채 남았지만, 5년 뒤에는 25.7%가 같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남았음.

<표 29> 비표본오차 교정 전후 경제활동상태 이동

		13차					17차					
		비표본오차 교정 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12차	비정규직	57.4	25.8	2.8	14.0	100.0	45.9	28.7	6.8	18.6	100.0	
		54.5	11.8	2.0	4.0	12.3	36.0	13.1	4.9	6.3	12.8	
	정규직	11.3	80.5	1.5	6.7	100.0	14.6	66.5	6.3	12.6	100.0	
		22.7	77.8	2.2	4.1	26.2	24.1	64.2	9.4	9.0	27.0	
	자영업	2.1	2.0	89.2	6.7	100.0	7.7	7.2	72.0	13.1	100.0	
		2.8	1.3	88.7	2.7	17.2	8.7	4.7	73.7	6.4	18.4	
	미취업	5.9	5.6	2.8	85.8	100.0	12.2	12.0	5.1	70.8	100.0	
		20.0	9.1	7.0	89.1	44.3	31.2	17.9	12.0	78.4	41.9	
	계	13.0	27.1	17.3	42.6	100.0	16.3	27.9	17.9	3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표본오차 교정 후									
	비정규직	60.5	22.2	2.9	14.4	100.0	47.0	26.8	7.1	19.2	100.0	
		58.0	9.6	2.0	4.0	12.0	36.6	11.6	4.9	6.3	12.3	
	정규직	8.5	83.4	1.5	6.6	100.0	12.9	68.5	6.2	12.4	100.0	
		18.2	80.2	2.2	4.1	26.6	22.3	66.1	9.4	9.0	27.4	
	자영업	2.1	2.0	89.2	6.7	100.0	7.7	7.2	72.0	13.1	100.0	
		2.9	1.3	88.7	2.7	17.2	9.0	4.7	73.7	6.4	18.4	
	미취업	5.9	5.6	2.8	85.8	100.0	12.2	12.0	5.1	70.8	100.0	
		20.9	8.9	7.0	89.1	44.3	32.2	17.6	12.0	78.4	41.9	
	계	12.5	27.6	17.3	42.6	100.0	15.8	28.4	17.9	3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같은 기업 내 이동만										
비정규직	53.2	16.7				25.7	11.5					
정규직	5.5	76.7				4.5	52.1					

주: 같은 기업 내 이동은 교정 후 수치임.

○ 이상의 수치는 이직/ 계약 종료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이를테면, 12차 비정규직 중 53.2%는 다음 해에도 같은 기업 안에서 비정규직인 채로 남

- 하지만, 6.7%는 다른 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들어갔음
- 5년 뒤를 보면 12차 비정규직의 25.7%는 여전히 같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21.3%는 다른 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해 있었음
- 또한, 12차 비정규직의 22.2%는 정규직이 되었지만,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이 된 사람은 16.7%이고, 나머지 5.5%는 다른 기업으로 이직해 정규직이 되었음
- 12차 비정규직의 26.8%는 5년 뒤인 17차 조사에서 정규직이 되어 있었지만,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인 채 남은 사람은 11.5%이고, 15.3%는 다른 기업의 정규직이 되어 있었음.

○ 이직/ 계약 종료가 활발하지만, 12차 비정규직의 절반 가까이는 5년 뒤에도 비정규직이었으며, 정규직인 사람은 26.8%에 불과하고 7.1%는 자영업, 19.2%는 미취업자가 되어 있었음

- 비정규직인 사람의 상당수는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정규직↔미취업 등을 오가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12차 조사에서 정규직이었던 사람은 5년이 지나도 정규직인 사람이 68.5%였으며, 비정규직이 된 사람은 12.9%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

○ 다음으로,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한시근로, 파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이행률을 보였으며, 시간제, 용역 근로가 낮은 이행률을 보였음

- 기간제의 경우 같은 기업 정규직 전환율은 1년 경과 시점에 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견직도 이와 유사한 16.7%를 보임

<표 30> 세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의 1년 고용형태 유지율

(단위: %)

		13차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12차	한시근로	56.7	25.8	2.6	14.9	100.0
	같은 기업	49.7	20.7			
	기간제	60.0	21.1	2.6	16.3	100.0
	같은 기업	50.2	16.0			
	비전형	69.4	14.1	3.2	13.3	100.0
	같은 기업	62.7	9.6			
	파견	62.8	24.5	0.0	12.8	100.0
	같은 기업	46.1	16.7			
	용역	79.0	8.6	2.6	9.9	100.0
	가내	62.8	11.8	0.0	25.5	100.0
	일일	73.5	13.6	1.6	11.3	100.0
	특수형태	68.6	16.1	8.1	7.3	100.0
시간제	66.9	6.5	3.3	23.4	100.0	
같은 기업	56.3	0.7				

주: 한시근로, 기간제, 비전형, 시간제는 비표본오차 교정 후 수치이며, 나머지는 원계열임. 표본수가 얼마 안 되므로, 비전형 근로의 세부 고용형태는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음.

○ 12차 년도 기준 25-34세의 이동을 보면, 12차년도 비정규직이었으나 13차년도에 정규직이 된 사람은 37.6%, 같은 기업내에서 정규직이 된 사람은 26.5%로 상대적으로 전체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5년 뒤인 17차년도에 정규직이 된 사람은 50.1%이며,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이 된 채 남은 사람은 15.1%에 불과해 대부분은 다른 기업에서 정규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이 연령대에서 비정규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자리 질 발전과정은 동일 기업 내에서가 아니라 이직을 통해 새로운 기업의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줌

<표 31> 25-34세 비표본오차 교정 후 경제활동상태 이동

		13차					17차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12차	비정규직	47.3	37.6	2.2	12.9	100.0	30.4	50.1	6.1	13.4	100.0	
		49.1	8.4	3.5	5.2	11.7	27.7	10.6	6.5	5.7	11.0	
	정규직	6.4	85.4	1.2	7.1	100.0	7.5	72.1	6.6	13.9	100.0	
		27.9	80.9	8.1	12.0	49.4	31.2	70.2	32.0	26.8	50.3	
	자영업	3.1	5.0	80.3	11.7	100.0	5.4	18.1	58.0	18.5	100.0	
		1.8	0.6	70.3	2.7	6.6	3.0	2.4	37.9	4.8	6.8	
	미취업	7.4	16.2	4.3	72.1	100.0	14.3	27.1	7.7	51.0	100.0	
		21.1	10.0	18.2	80.1	32.2	38.1	16.8	23.7	62.7	32.0	
	계	11.3	52.2	7.6	29.0	100.0	12.0	51.6	10.3	2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같은 기업 내 이동만											
		비정규직	39.6	26.5				12.8	15.1			
	정규직	4.1	76.2				2.4	51.2				

○ 30대 남성에 국한해 보아도 이상의 특징은 그대로 관찰됨

<표 32> 30대 남성의 비표본오차 교정 후 경제활동상태 이동

		13차					17차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12차	비정규직	48.1	42.1	3.9	6.0	100.0	39.3	46.9	9.5	4.3	100.0
		55.3	8.9	3.5	8.2	13.4	38.3	10.1	6.9	9.6	13.4
	정규직	5.6	88.6	2.3	3.6	100.0	8.2	80.9	8.7	2.2	100.0
		29.9	86.8	9.4	22.6	62.3	37.0	81.0	29.5	22.7	62.0
	자영업	3.8	6.0	86.3	4.0	100.0	4.8	18.2	72.3	4.8	100.0
		4.7	1.4	82.4	5.7	14.3	5.3	4.5	60.1	12.1	15.2
	미취업	11.8	18.7	7.0	62.5	100.0	28.4	29.3	6.8	35.6	100.0
		10.1	3.0	4.7	63.6	10.0	19.4	4.4	3.5	55.6	9.4
	계	11.7	63.5	15.0	9.9	100.0	13.7	62.0	18.3	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같은 기업 내 이동만											
	비정규직	44.1	31.7				23.1	19.5			
	정규직	3.7	81.4				3.6	57.1			

○ 12차년도에 40대였던 남성을 보면, 정규직 이행률은 15%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정규직→자영업으로의 이동과 비정규직→미취업으로의 이동이 30대 남성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특징이 있음

<표 33> 40대 남성의 비표본오차 교정 후 경제활동상태 이동

		13차					17차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12차	비정규직	69.8	20.6	4.2	5.5	100.0	49.1	31.9	11.6	7.5	100.0
		70.8	6.7	2.0	14.1	15.3	43.7	10.6	5.8	20.9	15.4
	정규직	4.4	92.0	1.7	2.0	100.0	11.1	80.5	6.0	2.3	100.0
		13.2	88.5	2.4	15.0	45.4	29.7	80.2	9.0	19.6	46.1
	자영업	2.7	2.0	92.3	2.9	100.0	7.7	9.7	79.3	3.2	100.0
		5.7	1.4	91.6	15.5	31.6	14.3	6.7	81.9	18.8	32.0
	미취업	20.1	21.1	16.5	42.4	100.0	32.4	17.7	15.6	34.4	100.0
		10.4	3.5	4.0	55.5	7.8	12.3	2.5	3.3	40.8	6.5
	계	15.1	47.2	31.8	5.9	100.0	17.3	46.3	30.9	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같은 기업 내 이동만											
	비정규직	62.0	16.0				36.9	17.0			
	정규직	2.3	85.8				16.3	67.6			

○ 50대 남성은 보다 뚜렷하게 정규직 이행률이 떨어지며, 비정규직 잔존률은 크게 증가하고, 자영업 이행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미취업 이행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연령대로 진입하는 이 연령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표 34> 50대 남성의 비표본오차 교정 후 경제활동상태 이동

		13차					17차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12차	비정규직	69.1	20.9	1.4	8.7	100.0	60.6	17.0	7.3	15.2	100.0
		61.7	11.7	0.7	9.7	17.1	47.6	12.2	3.8	14.4	17.7
	정규직	11.5	80.8	1.2	6.5	100.0	20.1	56.1	6.6	17.2	100.0
		19.4	85.8	1.1	13.8	32.3	29.5	75.5	6.4	30.4	33.1
	자영업	1.4	0.7	93.5	4.4	100.0	6.4	4.9	81.6	7.2	100.0
		2.5	0.9	93.6	10.2	35.2	9.8	7.0	83.5	13.3	34.9
	미취업	20.5	3.1	10.7	65.7	100.0	20.7	9.1	15.1	55.0	100.0
		16.4	1.6	4.7	66.2	15.3	13.1	5.3	6.3	41.9	14.3
	계	19.2	30.5	35.2	15.2	100.0	22.6	24.6	34.1	1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같은 기업 내 이동만											
	비정규직	65.7	19.3				40.1	12.1			
	정규직	9.1	75.5				6.0	43.6			

○ 여성도 연령대별 이행률을 보면 3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정규직 이행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공유하지만, 남성보다 이행 수준 자체는 낮게 나타나며, 미취업 이행률은 높게 나타나는 특징

<표 35> 30대 여성의 비표본오차 교정 후 경제활동상태 이동

		13차					17차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12차	비정규직	53.2	28.9	1.5	16.4	100.0	43.7	35.6	2.8	17.9	100.0
		42.7	9.7	1.4	3.3	9.7	26.8	10.6	2.4	3.6	9.0
	정규직	12.0	83.0	0.8	4.2	100.0	11.1	68.6	3.8	16.5	100.0
		27.2	78.8	1.9	2.4	27.3	21.0	62.9	10.2	10.3	27.9
	자영업	2.8	5.0	78.5	13.6	100.0	9.3	17.4	49.8	23.5	100.0
		2.5	1.9	80.3	3.0	10.9	6.2	5.6	47.2	5.1	9.8
	미취업	6.4	5.3	3.4	85.0	100.0	12.7	12.0	7.8	67.6	100.0
		27.6	9.6	16.4	91.3	52.2	46.1	21.0	40.2	81.0	53.4
	계	12.1	28.8	10.6	48.5	100.0	14.7	30.4	10.3	44.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같은 기업 내 이동만											
	비정규직	43.6	18.3				16.6	13.9			
	정규직	6.8	78.4				2.9	57.1			

<표 36> 40대 여성의 비표본오차 교정 후 경제활동상태 이동

		13차					17차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12차	비정규직	66.5	17.6	3.8	12.1	100.0	52.2	26.7	6.5	14.7	100.0
		65.1	14.1	3.3	6.9	19.3	40.5	20.8	5.7	8.4	18.4
	정규직	12.6	80.8	0.5	6.2	100.0	21.1	62.2	5.4	11.3	100.0
		14.0	73.7	0.5	4.0	22.0	20.0	59.3	5.8	7.9	22.4
	자영업	1.8	3.1	88.9	6.2	100.0	13.9	5.4	69.7	11.1	100.0
		2.0	2.9	88.1	4.1	22.3	13.0	5.1	73.5	7.7	22.1
	미취업	10.2	6.2	5.1	78.5	100.0	16.9	9.4	8.5	65.2	100.0
		18.9	9.4	8.2	84.9	36.4	26.5	14.8	15.0	76.0	37.1
	계	19.7	24.1	22.5	33.7	100.0	23.6	23.5	21.0	3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같은 기업 내 이동만										
		비정규직	58.3	13.3				23.5	12.3		
	정규직	6.8	76.9				6.5	47.8			

<표 37> 50대 여성의 비표본오차 교정 후 경제활동상태 이동

		13차					17차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12차	비정규직	64.7	12.3	5.7	17.3	100.0	49.4	9.1	7.3	34.2	100.0
		57.3	13.3	3.6	4.9	13.9	40.6	13.4	4.9	9.2	14.0
	정규직	17.6	71.4	0.0	11.1	100.0	20.7	48.6	4.5	26.2	100.0
		15.3	75.6	0.0	3.1	13.7	16.1	67.5	2.8	6.6	13.3
	자영업	2.2	0.9	88.2	8.7	100.0	6.5	2.8	68.2	22.5	100.0
		3.2	1.5	90.3	4.1	22.9	9.0	6.9	76.5	10.1	23.5
	미취업	7.7	2.5	2.8	87.1	100.0	11.9	2.4	6.8	79.0	100.0
		24.2	9.6	6.1	87.9	49.5	34.4	12.1	15.8	74.1	49.2
	계	15.8	12.9	22.3	49.0	100.0	17.1	9.5	21.0	5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같은 기업 내 이동만										
		비정규직	57.5	10.7				25.3	4.4		
	정규직	10.6	65.6				6.2	37.1			

4. 결론 및 정책 함의

- 비정규직 전체 규모가 2014년 다소 크게 튼 것을 제외하면 경황과 비교해 문제 있어 보인
진 않음
 - 그러나, 세부로 구분해 보면 한시근로 비중과 추이가 경황과 반대라는 차이 존재
 - 과거엔 기간제가 지나치게 작았고,
 - 기간제 추이가 경황과 반대이며,
 - 비기간제 한시근로가 지나치게 많이 잡히는 차이 있음
- 연령, 성, 교육수준 등 인구분포의 경황과의 차이는 이와 같은 다른 추세를 설명함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 직업 분포도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고연령대에서 한시근로, 특히 비기간제 한시근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저소득층에서 비기간제 한시근로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설문구조나 조사 관행이 경황과 다른 점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줌
 - 일일근로가 비기간제 한시근로 설문에 교차 응답하는 점이 경황과 차이나는 부분이며, 이
를 통제하면 비기간제 한시근로 규모가 다소 감소
 - 비기간제 한시근로는 노동패널 조사의 경우 저임금일 경우 비중이 크게 높아 비공식 고
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자가 그만두려면 언제든 그만두는 조건으로 일한다” 등 해
석의 경계가 애매한 응답들에서 다르게 응답한 것이 경황과 차이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추측됨
- 동일인을 추적조사하는 노동패널 조사구조 상 동일 기업내 정규-비정규 전환을 보면 특별
한 이유 없이 두 상태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포착됨
 - 이들의 상태변화를 교정해주면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하고, 비정규직→정규직 이행률도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설문이 하나의 설문이 아니고 여러 설문을 조합해 정의하는 특성 상 비표본오
차가 개입될 소지가 큼
 - 오응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만 수정했으므로, 실제 조사 상에서 이와 같은 오차를
줄이기 위한 조사방식을 도입할 경우 더 많은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선, 조사 현장에서 과거 정보를 연동시켜 응답이 바뀐 사람들을 대상
으로 정말 바뀐 것인지를 확인하는 루틴을 조사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

며,

- 또한, 경찰의 조사관행을 파악하여 노동패널과 무엇이 달라 한시근로 응답이 달라지게 되는지 분석하고, 노동패널 조사 관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 노동시장에 진입해 활발히 경력을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젊은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5년이 경과해도 정규직 전환이 높지 않고,

- 동일 기업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남아 있는 비율은 5년이 경과하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직과 계약 해지가 활발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력의 발전과정이란 이직을 동반하는 과정임을 시사
- 비정규직 고용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도록 촉진하는 정책과 동시에 직무 중 일자리 탐색을 지원할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성 시사

○ 추가로 25-49세 남성 가구주를 근로빈곤 여부로 나눠 이행을 보았음

- 근로빈곤은 일을 함에도 가난한 가구를 의미. 가구소득 중위 미만 60%로 정의.
- 가구 소득자료와 개인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
- 분석결과 12차 빈곤가구에 있던 25-49세 비정규직 남성 가구주의 33.5%는 여전히 빈곤 가구 비정규직으로 머물러 있었으며, 5.5%는 실직했고, 7.8%는 빈곤 상태이지만 정규직으로 이동
- 12차 빈곤가구 25-49세 정규직 남성 가구주의 20.4%는 빈곤 상태에 머무르면서 정규직으로 있었지만, 57.9%는 비빈곤-정규직으로 변화
- 비빈곤 가구의 비정규직 25-49세 남성 가구주는 51.1%가 여전히 비빈곤-비정규직에 머물렀고, 35.9%는 비빈곤-정규직으로 변화
- 비빈곤 가구의 정규직 25-49세 남성 가구주는 빈곤 정규직+비정규직으로 2.0%만이 하락. 87.3%는 비빈곤-정규직으로 남았음
- 이를 보면, 빈곤 가구에 있는 비정규직 남성 가구주는 노동시장 활동이 활발한 25-49세 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빈곤/ 실직 위험을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남. 1년 경과 후 $33.5+7.8+5.5=46.7\%$ 가 여전히 빈곤/ 실직 위험에 빠져 있었음
- 5년 경과 후인 17차 경제활동 상태를 보더라도 빈곤 비정규직 남성 가구주는 빈곤 비정규직+빈곤 정규직+미취업 = 33.9% 가 빈곤/ 실직 위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빈곤 정규직 남성은 5년 뒤 $4.4+8.2+1.8=14.4\%$ 만이 빈곤/실직 위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
- 비빈곤 비정규직 남성은 5년 뒤 $5.1+4.0+1.6=10.7\%$ 가 빈곤/ 실직 상태로 떨어지는 지위 하락 경험
- 비빈곤 정규직 남성은 5년 뒤 $1.2+2.1+2.0=5.2\%$ 만이 빈곤/ 실직 상태로 떨어지는 지위 하락 경험
- 이를 보면, 가구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남성 가구주는 노동시장 활동이 활발한 25-49세

- 연령대에 있어도 빈곤/ 실직 위험 탈출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들의 경제활동상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의 정책과제로 중요함을 시사

<표 38> 가구 빈곤 여부와 연결해 분석한 경제활동 상태 이동

(단위: %)

		13차							
		빈곤-비 정규직	빈곤-정 규직	비빈곤- 비정규직	비빈곤-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전체	
12차	빈곤-비 정규직	33.5	7.8	32.8	16.6	3.7	5.5	100.0	
		34.9	7.5	9.5	1.1	0.5	3.8	3.5	
	빈곤-정 규직	2.1	20.4	9.5	57.9	2.7	7.6	100.0	
		4.2	38.3	5.4	7.6	0.8	10.0	6.8	
	비빈곤- 비정규직	5.1	0.5	51.1	35.9	4.1	3.3	100.0	
		17.9	1.6	50.3	8.2	2.0	7.7	11.8	
	비빈곤- 정규직	0.6	1.4	6.8	87.3	1.8	2.1	100.0	
		7.8	18.9	26.9	79.6	3.5	19.3	47.3	
	자영업	0.6	0.6	2.2	2.7	91.1	2.8	100.0	
		4.0	3.7	4.2	1.2	86.5	12.6	22.9	
	미취업	13.4	13.9	5.6	16.1	20.6	30.4	100.0	
		31.2	30.0	3.6	2.4	6.7	46.6	7.8	
	전체	3.3	3.6	12.0	51.9	24.1	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7차						
			빈곤-비 정규직	빈곤-정 규직	비빈곤- 비정규직	비빈곤-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전체
	빈곤-비 정규직	14.1	8.5	34.7	24.4	7.0	11.3	100.0	
		14.9	8.3	8.1	1.5	0.8	8.7	3.1	
	빈곤-정 규직	4.4	8.2	13.2	62.9	9.5	1.8	100.0	
		10.8	18.7	7.3	9.0	2.7	3.3	7.3	
비빈곤- 비정규직	5.1	4.0	37.6	40.2	11.5	1.6	100.0		
	21.2	15.3	34.4	9.5	5.4	4.7	12.1		
비빈곤- 정규직	1.2	2.1	8.1	79.1	7.5	2.0	100.0		
	19.5	30.3	28.3	71.5	13.3	22.1	45.9		
자영업	0.9	1.7	5.3	10.3	78.9	3.0	100.0		
	7.6	12.7	9.6	4.9	73.6	17.6	24.2		
미취업	10.1	6.2	21.4	24.4	14.6	23.4	100.0		
	26.0	14.7	12.3	3.6	4.2	43.6	7.6		
전체	2.9	3.2	13.2	50.8	25.9	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상의 분석은 사내하청, 비공식 고용 같은 경활 상의 비정규직 못지 않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자리에 대한 분석은 제외된 것이므로 한계가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비정규직과 동일한 설문 문항의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음

□ 부표

<부표 1>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파견 근로 비중

(단위: %)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1.6	0.4	0.7	1.9	1.8	2.4	1.3	1.9	0.8	1.5	1.2	1.3
25-29세	1.5	1.9	0.7	1.0	2.7	2.2	1.6	1.4	1.3	1.0	1.1	0.7
30-34세	1.1	0.9	1.8	1.0	1.7	1.6	1.2	0.7	0.7	0.9	0.9	0.8
35-39세	2.0	1.4	0.9	0.8	1.0	0.5	0.6	0.8	0.8	0.9	0.6	1.0
40-44세	2.0	1.8	2.2	1.6	2.1	1.6	1.1	1.1	1.0	1.0	0.6	0.7
45-49세	2.7	1.8	2.0	2.1	1.8	1.5	0.7	0.9	1.4	1.1	0.9	0.9
50-54세	2.5	1.5	1.7	1.7	1.6	2.3	0.7	1.1	1.2	1.4	1.4	0.8
55-59세	1.6	1.6	0.3	0.5	1.3	1.0	0.7	1.8	1.4	1.1	1.5	1.4
60-64세	2.1	4.2	0.7	2.5	2.4	4.2	1.1	2.8	2.0	1.8	2.1	1.8
65+	4.0	4.8	0.5	1.8	2.9	4.3	1.1	2.5	2.1	3.3	3.0	2.4
Total	1.9	1.7	1.4	1.4	1.8	1.8	1.0	1.2	1.1	1.2	1.1	1.0

<부표 2>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용역 근로 비중

(단위: %)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0.7	1.9	1.3	0.6	0.9	0.3	2.1	2.1	3.4	2.2	1.5	1.2
25-29세	1.1	2.0	2.1	0.6	1.3	1.7	1.8	1.7	1.2	1.7	1.3	1.4
30-34세	0.9	1.4	0.9	0.9	0.6	1.6	1.5	1.2	1.4	1.2	1.1	1.0
35-39세	1.4	1.7	1.1	2.3	1.2	1.8	1.7	1.4	1.5	1.6	1.4	1.1
40-44세	1.3	2.3	2.7	1.5	1.8	3.8	1.8	1.9	2.1	1.8	1.9	1.4
45-49세	2.4	1.8	2.9	2.6	2.5	2.2	3.1	2.6	2.9	2.9	2.8	2.0
50-54세	2.9	5.8	4.7	4.3	4.6	3.1	5.1	4.6	4.7	4.4	3.5	3.0
55-59세	9.3	5.8	5.9	4.8	4.3	5.8	9.7	9.4	8.8	8.7	8.7	7.1
60-64세	10.5	12.5	12.9	9.8	11.0	10.8	18.6	15.5	16.3	16.2	13.2	13.8
65+	11.5	11.1	15.8	15.0	15.3	15.1	14.2	15.1	16.4	16.7	15.3	14.6
Total	2.6	3.2	3.3	2.8	3.0	3.4	3.8	3.6	3.8	3.8	3.5	3.2

<부표 3>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 근로 비중

(단위: %)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3.7	2.1	2.0	0.1	0.5	0.0	0.9	0.3	1.0	0.8	0.4	0.7
25-29세	0.7	0.7	0.9	1.0	0.9	1.2	1.8	1.8	1.8	1.5	1.3	1.2
30-34세	1.1	0.8	0.5	0.8	1.1	1.3	3.4	3.1	2.8	2.1	2.3	1.8
35-39세	2.4	2.7	3.0	2.3	2.1	1.5	5.4	4.9	4.0	3.2	3.6	3.5
40-44세	4.2	4.3	2.5	2.3	2.4	3.0	5.8	5.0	5.3	4.5	3.8	4.3
45-49세	2.4	1.8	3.1	3.4	2.4	1.1	5.2	4.5	4.3	4.7	4.8	4.0
50-54세	2.5	2.3	2.9	2.9	2.9	3.7	3.9	4.0	4.9	4.3	4.1	4.1
55-59세	1.8	2.5	0.4	1.7	1.4	0.9	3.7	3.4	3.5	3.1	2.8	2.6
60-64세	2.8	2.4	1.2	3.5	1.7	1.0	2.3	2.3	3.0	3.0	3.2	2.3
65+	0.8	0.6	0.3	0.7	0.9	1.7	3.9	2.7	2.9	2.3	2.1	1.4
Total	2.2	2.0	1.9	2.0	1.8	1.7	3.9	3.5	3.5	3.1	3.0	2.8

<부표 4>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가내 근로 비중

(단위: %)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0.4	0.8	1.3	0.8	0.0	0.0	0.4	0.1	0.2	0.2	0.0	0.2
25-29세	0.3	0.9	0.8	0.4	0.3	0.6	0.1	0.1	0.1	0.1	0.0	0.0
30-34세	0.4	0.5	0.2	0.0	0.1	0.2	0.5	0.2	0.3	0.2	0.2	0.1
35-39세	0.7	0.3	0.7	0.3	0.5	0.2	0.5	0.6	1.0	0.7	0.6	0.5
40-44세	0.7	0.6	0.6	0.1	0.4	0.4	0.7	0.7	0.4	0.4	0.6	0.5
45-49세	1.6	0.8	1.2	0.9	0.9	0.3	0.7	0.4	0.4	0.4	0.1	0.2
50-54세	0.9	0.9	0.6	1.3	0.7	0.2	0.7	0.2	0.3	0.3	0.5	0.4
55-59세	1.9	1.0	1.4	0.7	1.2	0.9	1.0	0.4	0.5	0.6	0.6	0.6
60-64세	2.6	1.6	1.5	1.9	1.1	0.6	0.9	0.5	0.4	0.6	0.6	0.2
65+	3.5	0.4	0.3	1.2	1.1	0.6	1.7	1.6	1.1	1.1	1.2	0.3
Total	0.9	0.7	0.8	0.6	0.5	0.4	0.6	0.4	0.4	0.4	0.4	0.3

<부표 5>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일일근로 비중

(단위: %)

	한국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2.0	0.9	2.9	2.8	2.1	2.4	2.8	2.2	2.5	3.1	2.2	2.5
25-29세	2.0	0.5	1.5	0.6	0.5	1.0	1.0	0.8	0.9	1.0	1.2	0.8
30-34세	1.4	1.5	1.2	0.8	0.2	0.3	1.7	1.7	1.5	0.9	1.0	1.3
35-39세	2.7	3.6	1.5	2.2	2.0	2.3	3.4	2.4	3.1	2.6	2.5	2.0
40-44세	6.6	6.1	4.8	4.5	5.8	5.4	5.2	4.4	4.8	3.9	3.7	3.5
45-49세	10.7	11.3	8.9	7.4	7.3	6.1	8.4	7.1	7.1	6.4	5.0	4.4
50-54세	15.8	12.3	14.5	12.0	12.0	12.1	9.5	9.5	10.0	8.5	7.4	6.9
55-59세	17.9	18.4	17.1	15.6	16.3	15.4	11.6	13.1	11.8	10.0	9.8	9.1
60-64세	24.1	18.8	21.1	14.9	15.5	16.7	10.6	13.6	14.0	13.0	12.7	11.5
65+	19.1	19.3	21.4	16.7	19.7	21.3	12.8	11.4	15.2	13.4	10.4	10.6
Total	7.3	7.0	6.8	6.0	6.3	6.5	5.4	5.1	5.5	4.9	4.5	4.3